

밀턴,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옹호하다

서양의 금서 이야기 — 15

주명철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17세기, 유럽의 지성은 '재갈 먹인 말' 처럼 권력을 향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 때 존 밀턴은 검열제도를 정면으로 비판한 《아레오파기티카》를 펴내 유럽사회에 일대 충격을 던졌다. 출판 직후 의회의 탄압을 받은 이 책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옹호한 최초의 문헌으로 기록됐다.

16세기부터 유럽은 해의 팽창주의를 추구했다. 그리하여 18세기 후반까지 광대한 세계 무역체제의 중심이 됐다. 그러나 이 말이 유럽이 살기 좋은 낙원이 됐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1517년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의 여파로 국제전쟁과 내란이 자주 일어나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다. 15세기부터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 16세기 말에는 거의 1억에 가까워졌지만, 식량생산의 수준은 여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두세배 이상 값이 오른 곡물을 쉽게 구하지 못했다. 그리고 식민지에서 금과 은이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에 통화량이 급격히 늘어나 사상 처음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다. 부자는 이같은 경제위기를 이용해 더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

브뤼겔이 그린 《죽음의 승리》는 그가 현실에서 보고들은 모습을 좀 과장해서 그린 것이리라. 노동력이 넘치는 데 비해 임금수준은 낮았고, 곡물 값이 크게 올랐음은 물론, 군대가 약탈과 파괴와 살상을 마구 일삼았기 때문에 거기서 세계의 종말을 본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주여, 우리를 질병과 굶주림과 전쟁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했다. 여기서 말하는 질병은 풍토병처럼 가끔 찾아와 때로는 인구의 절반 이

상을 저 세상으로 데려가는 흑사병이었고, 굶주림은 전쟁이나 기근의 결과로 겪는 고통이었다. 당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종말론에 물들었는지 보여주는 기도문이라 하겠다.

의회 탄압을 받은 밀턴의 저서

20세기말이 되자 종말론자들이 급격히 늘어났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극히 냉소적이었다. 이렇듯 다양한 가치관이 서로 경쟁하는 오늘날은, 어느 한 가지 가치관이 일방적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대기 때문에, 종교적인 가치관보다 더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비해서 훨씬 더 종교적 강박관념에 시달리던 16, 17세기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고 느꼈을 것이다. 역사가들도 1000년경의 사람들보다 1600년을 전후한 시대의 사람들이 더욱 고통을 느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브뤼겔이 그린 《죽음의 승리》는 화가의 목시록이다.

과학혁명이 일어나는 17세기에도 여전히 마녀사냥이 있었고, 종교적인 이유로 이성의 산물인 훌륭한 저작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다. 프란시스

베이컨의 《지식의 진보》(1605)는 1640년 스페인의 종교재판소 금서목록에 기록됐고, 1668년에는 그 작품 가운데 일부(왕에게 바친 제9권)가 교황청의 금서목록에 들어갔다. 갈릴레오는 1616년 교황 바울 5세에게 질책을 당하고, 더 이상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주장하거나, 가르치거나, 옹호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세르반테스의 《돈 키호테》(1605~1615) 몇 구절이 포르투갈의 금서목록에 포함되고, 몽테뉴의 《수상록》(1580~1588)이 1676년 로마의 금서목록에 들어갔던 것이다.

이처럼 유럽의 모든 나라에서 종교나 세속의 권력이 합리적인 비판과 주장을 탄압하고 있는 동안, 1644년 11월 영국에서는 검열제도를 정면으로 비판한 대담한 책이 나왔다. 존 밀턴은 1643년 6월에 나온 출판허가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기 위해 《아레오파기티카》(박상익, 소나무)를 검열도 받지 않은 채 세상에 내놓았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옹호한 최초의 문헌으로 널리 알려진 이 작품에서 밀턴은 “나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알고 말하고 주장할 자유를, 다른 어떤 자유보다도 그런 자유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다.

밀턴은 1654년에 “진실한 것과 그릇된 것, 출판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더 이상 소수의 무식하고 자유롭지 못한 개인들의 손에 맡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레오파기티카》를 썼다고 말했다. 이런 개인들은 속된 미신의 수준을 넘어선 견해나 감정을 보여주는 저작에 대해서는 전혀 허가를 해주려 들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손에서 출판물을 구출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아레오파기티카》의 부제를 ‘검열없는 출판의 자유를 위해 존 밀턴이 잉글랜드 의회를 상대로 작성한 연설문’이라고 붙인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밀턴이 붙인 제목은 고대 그리스의 전쟁신 아

레스와 관련이 있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의 '아레오파고스' 최고법정이 열려 정치와 종교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거의 300명에 이르는 의원은 아테네의 자유시민이 투표로 뽑았다. 아테네 민주주의 기관의 영광을 기리는 듯한 《아레오파기티카》는 밀턴의 성향을 보여준다. 밀턴은 "국가 안에서 아무런 불평도 제기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며, ... 불평이 자유롭게 제기되고 깊이 숙고돼 신속히 개혁될 때 비로소 현명한 사람들이 추구하던 시민적 자유가 최대한으로 달성됩니다"라고 분명히 신념을 밝히고 있다.

물론 이 책은 의회의 탄압을 받았다. 크롬웰을 주축으로 한 영국 의회의 프로테스탄트파는 밀턴이 책을 "결단코 죽은 물건이 아니며, 그 속에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 그 책의 저자의 영혼만큼이나 활동적"인 것으로 취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레오파기티카》를 탄압했다고 한다.

"사람을 죽이는 자는 신의 형상인 이성적 창조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책을 파괴하는 자는 이성 그 자체를 죽이는 것이며,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신의 형상을 죽이는 것입니다."

밀턴은 영국에서 퓨리탄 혁명으로 절대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동안 글을 썼다. 영국은 이미 종교적으로 여러 종파가 존재하고 있었고, 가톨릭이나 영국국교회파보다 퓨리탄이 우세했기 때문에 반란을 성공시켜 왕을 참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의 사정은 달랐다. 신교도가 있었고, 낭트칙령으로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하지만, 리슐리외 추기경은 신교도의 세력을 부수면서 절대주의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있었다. 또한 루이 14세의 어린 시절 정사를 책임지던 마자랭은 리슐리외의 정책을 밀고 나갔다.

그러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1648년 6월부터 고등법원은 왕의 절대권을 제약하려고 노력했다. 8월 고등법원 지도자 세명을 체포토록 하자 파리에서는 소요사태가 일어났다. 1649년 1월 5일 밤, 어린 왕과 섭정인 모후, 그리고 마자랭은 파리에 서 빠져나가 생 제르맹 앙 레로 피했다. 마자랭

밀턴은 퓨리탄 혁명으로 절대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동안 글을 썼다. 영국은 이미 종교적으로 여러 종파가 존재하고 있었고, 가톨릭이나 영국 국교회파보다 퓨리탄이 우세했기 때문에 반란을 성공시켜 왕을 참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의 사정은 달랐다. 신교도가 있었고, 낭트칙령으로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하지만, 리슐리외 추기경은 신교도의 세력을 부수면서 절대주의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있었다.



밀턴은 1654년에 "진실한 것과 거짓된 것, 출판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더 이상 소수의 무식하고 자유롭지 못한 개인들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레오파기티카》를 썼다고 말했다.

의 사무실 창에 돌을 던졌기 때문에 '새총'이라는 이름이 붙은 '프롱드난'은 이렇게 진행됐다.

역사적 가치 재평가된 '마자리나드'

이 때 고등법원 인사들은 여론을 주도하기 위해 팸플릿을 뿌렸다. 마자랭을 비난하는 팸플릿이라 해 이름이 '마자리나드'며 분량도 8쪽에서 32쪽 사이인 이 소책자는 1648년부터 1653년까지 5200가지나 발간됐는데, 반란이 절정에 달했을 때는 하루 10여편이나 나왔다. 조잡한 인쇄와 거친 말투 때문에 오랫동안 역사가의 관심을 끌지 못했던 이 사료는 오늘날 활발한 연구대상이 됐다. 흰 빵 1파운드 값보다 싼 1수짜리(8쪽짜리)라 할지라도 다양한 표현양식으로 독자에게 다가갔다. '마자리나드'는 편지·대화·노래·벽보·정기간행물·풍자시의 형식을 빌어 치열한 심리전과 정치교육을 주도했던 것이다. 문필가나 법조계 인사의 작품으로서, 주로 풍 너프 같이 사람이 많이 오가는 길목에서 팔렸던 이 정치투쟁의 도구는 대도시의 식자층과 반식자층을 파고들었다.

노래 형식을 빌린 '중소리를 신호로 읊과 마을

의 농민들이 나선 마자랭 사냥'은 다음과 같다.

"읍, 도시, 마을이여, 경종을 울려라. / 그가 정비하고자 했던 모든 길을 끊어버려라. / (후렴) 경종을 울려라. 덩, 덩, 마자랭을 잡아라.

이 배신자는 한밤중에 왕을 데려갔다네. / 잔악한 놈을 궁지에 몰아 넣자. / (후렴)

이 나쁜 무뢰한은 완전히 파멸시켰네. / 당신들, 마을 사람들이 / 강제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 (후렴) (...)"

'프롱드난'은 1648년부터 파리 고등법원이 시작했지만, 마자랭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콩데 공의 태도 때문에 대군들이 들고 일어나 새로운 전기를 맞았으며, 자기 야심을 실현하기 위해 남서부를 부추긴 콩데 공이 결정적으로 왕의 군대에 게 패배함으로써 평정됐다. 루이 14세와 섭정은 1652년 10월 21일에, 마자랭은 1653년 2월 3일에 각각 파리로 무사히 돌아왔다. 이제 곧 루이 14세의 세기라고 부를 수 있는 절대주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